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그리스도 예수와 아브라함 I

(요 8:52-59)

이종윤 원로목사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 13장부터 후반부입니다. 1-4장에서는 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고 큰 은혜를 받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5-8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대적하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일 논쟁을 비롯해서 "당신이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큰가"라는 조상에 대한 논쟁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박해하고 마지막에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열한 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있어야 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계셨다는 말씀을 하시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1. 유대인들의 논쟁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요 8:33상)

33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은 될지 모르나 영적인 자손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더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도다"(요 8:39-40)라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가 되었다고 책망하시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조상 중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 술한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 죽지를 않아?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 너는 귀신이 들렸구나! 도대체 네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몹쓸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 진리다. 왜냐하면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며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다. 나는 참을 말하

나 너희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희가 소위 말하고 있는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분이 내게 계시를 주셨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다"라고 하시며 오히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제일 가깝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라고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하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분을 알지도 못한다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2. 유대인들과 잘못된 사상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요 8:53상)

본문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상을 교정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상은 아브라함이 제일 큰 줄로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크신 분이니까?"라고 질문한 것같이 유대인들은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55절에는 '안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헬라어로 읽으면 유대인들이 안다는 말과 예수님이 안다는 말은 구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이고, 예수님이 안다고 하는 말은 '오이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아는 것, 관찰을 통해서 아는 것, 경험을 통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본질적이고 직관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는 아는 줄 알지만 실상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진실을 아는 자는 진실을 말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공격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자존심만 산산조각 났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감히 논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 계속)



2022 전반기 장학금 수여식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 김승록 집사)는 2022년 전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23명으로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 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 바란다.

장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장학생 15명 (서울교회/호산나대학 학생)
김구현 김은빈 김재령 마건영 문영주 문지혜 옥유진 이승아 이여진 장해라 정서현 정성호 정은서 조용덕 최준우
- 송암 장학생 5명(교역자/선교사 자녀)
김민혁 유성근 유성혁 장하늘 허평강
- 브리스길라 3명 (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학생)
김수언 김행언 정기성

2022년 겨울성경학교 & 겨울수련회 은혜롭게 마무리

2022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가 오늘 유년부 초등부 청년부 순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COVID19로 힘든 여건에서도 자녀들을 동참시켜주신 학부모들과 모든 순서를 기도로

준비하고 수고하신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번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서	일시	주제	대면 / 비대면
유년부 (조동수 목사)	2.26(토) - 27(주일)	바르게 믿어요 (복음과 구원받는 믿음)	(토) 비대면 (주일) 대면
초등부 (이대원 전도사)	2.26(토) - 27(주일)	바르게 믿어요 (복음과 구원받는 믿음)	대면 / 비대면 모두 준비 중
청년부 (안용곤 목사)	2.25(금) - 26(토) 2월 27일(주일)	청년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대면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다락방 개강

흑한기를 맞아 방학하였던 다락방이 3월 2일(수) 개강한다. 2022년도 상반기 다락방 심방 일정이 시작되며, COVID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전화, ZOOM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 한지원 심준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황수지(육사생도)
백승규 옥준용 장하랑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심준규 허성강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호산나대학, 코로나 시대 아름다운 기부 이어져



우리 사회의 이웃을 위한 기부 문화가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불구하고 호산나대학에서는 조기 취업생과 졸업생, 학부모님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산나대학 졸업생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자신의 첫 월급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13년째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유베이스 인터내셔널에 근무하고 있는 홍승민(11회 졸업생)군의 첫 월급 모교 기부가 조선일보(2021.12.31.)에 소개되는 등 어느 대학에도 없는 호산나만의 아름다운 기부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되면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취업한 이승진(제13회 졸업생) 학생은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해양공단에서 8시

간 근무하게 되어 기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첫 월급을 학교에 기부한 걸 보고 저도 첫 월급을 기부해야겠다고 결심했고, 후배들도 큰 행운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했고, 김민수(제11회 졸업생) 졸업생도 “코로나19가 너무 심하고 직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가운데 문화날개(서울시 사회적 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감사하고 후배들도 자랑스러운 호산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며 첫 월급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윤진석(서초구립요양원)과 신익수(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김서윤(은천요양병원), 김태영(서초구립요양원), 조은비(서초구립요양원), 이의현(강남요양원), 공소윤(트랜스코스모스) 등 학생 및 부모님은 취업과 졸업에 대한 감사와 어려운 학교의 발전

을 위해서 큰 금액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서울교회의 교육, 전도, 구제의 3대 목표에 따라 설립된 호산나대학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여 기독교적인 인격과 성품을 갖춘 전국시민의 양성과 세금을 납부하는 자립적인 성인을 만들기 위해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호산나대학을 위해 기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소중히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1년 한 해 동안 호산나대학 학부모, 학생, 졸업생 등이 납부하신 기부금 총액은 166백만 원입니다

* 사진 왼쪽: 호산나대학 졸업식
오른쪽: 호산나대학 업무 보고



사순절
四旬節
Lent

2022년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6일째인 수요일(올해는 3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날을 가리켜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성회(聖灰) 수요일' 또는 '참회(懺悔)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상징으로 머리에 재를 뿌린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영적 생활의 갱신을 도모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며 금식과 같은 엄격한 경건을 통하여 자신을 새롭게 할 뿐 만 아니라, 평소보다 더욱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복음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반의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40일이 아니라, 46일동안 지키는 까닭은 이 기간에 있는 여섯 번의 주일은 참회의 날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기간에는 특별히 결혼식 및 각종 축하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올 해 부활절은 4월 17일 주일입니다.



'복음호떡방'을 통해 군장병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서울교회 손달익 담임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는 경북 영천 제2탄약창 한마음군인교회 김태식 군 선교사입니다.

서울교회가 정상화되고 회복된 가운데 새롭게 구성된 비전 2030운동본부 본부장 피택장로님과 차장집사님, 그리고 열정을 다해 중보해 주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COVID19로 아직까지 민간 군 선교사가 예배 인도 외에 타 활동을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부임하신

창장님과 각 중대장들께 허락을 받아 1월 첫 주부터 각 중대를 순회하며 매주 1회씩 수요일 밤 시간을 이용해 '복음호떡방'을 열었습니다. 호떡은 현장에서 직접 구워주고 어묵탕은 미리 교회에서 만들어 중대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마다 100인분 정도 만들어 갑니다. 이 '복음호떡방'을 우리 젊은 용사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 순회 이 '복음호떡방'을 통해 복음 전달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2월 중순 흑한기 훈련 기간 동안 군 부대원 600명 전 장병들을 대상으로 핫도

그와 음료수 등을 가지고 위문을 하였습니다.

기도 제목

여전히 많은 병사들이 COVID19로 인해 군 생활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군 생활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제2탄약창 한마음군인교회 김태식 군 선교사 드림.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



정병무 은퇴장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 150:6)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남편이요 룯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이 태어났고 성군 다윗이 태어났으며 후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난 성지입니다.

이 거룩한 성지가 우리 교회 찬양예배 담당 찬양대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랜 환난으로 옛 모습을 많이 잃었지만 긍휼의 주님은 몸 된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손달의 담임목사님을 보내주시어 무너진 성벽 수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많은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워

일꾼으로 삼으셨고 피택장로 열 분을 세우고 장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온 교우님들의 교회 회복에 대한 애끓는 마음은 다 같다고 믿지만 정작 감당해야 할 소명을 외면하고 있다면 “말은 자의 충성”을 입술로만 외우는 자로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작금 우리 교회 각 찬양대가 대원 부족으로 몹시 애태우고 있으며 특히 베들레헴 찬양대가 너무나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자 대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순종하는 첫 걸음을 찬양예배 참석으로 시작하시는 결단이 필요하며 나아가 찬양대 봉사로 충성을 다 하고자 하시는 남성대원은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과 봉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 2022 순례자 캠페인 -

크리스찬이 세상을 바꾼다



순례자는 2022년 '크리스찬이 세상을 바꾼다'를 슬로건으로 한 환경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참여 방법

1. 내가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생활에 관한 글이나 인증 샷
2. 플로깅(plogging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환경운동), 비치코밍(beachcombing 해변 쓰레기줍기) 등 MZ세대의 친환경운동 인증 샷

* 참여 기간 2022년 4월 22일(지구의 날)까지

* 참여해 주신 성도들에게 소정의 친환경 제품을 드립니다.

* 보내는 곳

순례자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정정

지난 주 초등부 겨울수련회 기사 중 오병호 집사 (초등부 부장)을 '초등부 부감'으로 정정합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26.토요일 (재)한국기독교 학술원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 득남 : 8교구 김경석 성도 · 백성은 성도 가정 (백승갑 집사 · 박길자 권사 장녀)
- 떡 제공 : 5교구 김만운 집사 · 장호림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 드리며)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빠른 전쟁 종식과 우크라이나에 거주 중인 교민들의 안전한 탈출, 특별히 파송받으신 선교사님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2월28일	월	민 23-25		왕상 1-4	
3월1일	화	민 26-28		왕상 5-8	
3월2일	수	민 29-31		왕상 9-13	
3월3일	목	민 32-33		왕상 14-18	
3월4일	금	민 34-36		왕상 19-22, 왕하 1-3	
3월5일	토	신 1-2		왕하 4-8	
3월6일	주일	신 3-4		왕하 9-15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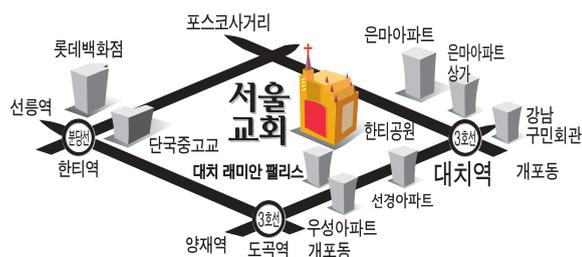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말씀과 기도가운데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며 주님 가신 길을 뒤따르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소서.
2. 영육간에 고난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선교현지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3.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내려 주시고, 이 땅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예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